

▶ 달러/원 주간 전망

• 배당 지급 등에 저항선 뚫릴 가능성... 美·中 지표, 韓 금통위 등 변동성 재료

서울, 4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한 대규모 배당금 지급이 예정된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대외 금융시장 분위기에 따라 기존 박스권을 상향 이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90-1,330원이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달러지수와 원화의 상관도는 크게 떨어졌다. 경기 둔화로 인한 통화 긴축 완화 기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물론 달러가 그날그날 분위기를 달리하며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원화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리스크 오프 모멘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줄긴 했지만 전달까지 13개월째 적자 추세가 이어지고, 이에 더해 2월 경상수지까지 11년 만의 첫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외환 수급 사정은 너무나 짝박하다.

계절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감산 조치로 인한 유가 하방 경직성과 수출 경기 악화를 감안할 때 무역수지 개선 기대는 크지 않다. 이달 10일 기준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통해 월초 외환 수급을 상황을 챙겨봐야 할 듯하다.

금주는 국내 주요 상장사의 배당 지급일이 몰려 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금주 외인 배당 몫은 3조 원을 조금 웃돈다. 이미 타이트한 수급에 대규모 이벤트성 수급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수위는 낮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번 주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 따라 환율은 핵심 저항선인 1,320원 선을 상향 돌파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 속에서 금주 중에는 글로벌 달러와 위안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 경제지표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3월 소비자·생산자물가, 중국 3월 수출입, 미국 3월 소매판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3월 정책회의록 공개 등이 대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요 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도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핵심 변수다.

국내 일정으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는 4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이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와 동결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읽기에 시장은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봐야 할 듯하다.

최근 방향성 없는 변동성 장세를 보여왔던 달러/원 환율이 금주 방향성을 더 뚜렷하게 굳힐지 주목된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10일(월)

- ⊙ 금융위원회: 벤처업계 자금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10:00)
- ⊙ 한국은행: 2023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3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 (뉴욕·워싱턴, 10~14일)

4월11일(화)

- ⊙ 관세청: 4.1~1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 금융감독원: 2023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 기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15:00)
- ⊙ 기획재정부: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2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 (뉴욕·워싱턴, 10~14일)

4월12일(수)

- ⊙ 통계청: 2023년 3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일자리 TF 회의 개최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 글로벌 은행·자산운용사 CEO 면담 실시 (11: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배포시)

4월13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3」개최 (09:1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10:00)
- ⊙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세미나 개최 (10:00)
- ⊙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폴란드 재무장관, Fitch 등과 면담 실시 (11:00)
- ⊙ 기획재정부: '23.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4월14일(금)

- ⊙ 기획재정부: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 S&P 및 IMF 총재 등 면담 (11:00)
- ⊙ 한국은행: 2023년 2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1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4월10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2월		-1,976.6B
4월10일	14:00	일본	소비자 신뢰지수	3월		31.1
4월10일	23:00	미국	고용추이	3월		118.29
4월10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2월		0.2%
4월10일	23:00	미국	도매판매 MM	2월		1.0%
4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3월		12.9%
4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3월		1,810.0B
4월10-17일		중국	FDI (YTD)	3월		6.10%
4월11일	10:30	중국	PPI YY	3월		-1.4%
4월11일	10:30	중국	CPI YY	3월		1.0%
4월11일	17:30	유로존	셴틱스 지수	4월	-9.8	-11.1
4월11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YY	2월	-3.5%	-2.3%
4월11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3월		90.90
4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물가지수 YY	3월		8.2%
4월12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YY	2월		4.5%
4월12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7일주간		217.9
4월12일	21:30	미국	CPI YY, NSA	3월	5.2%	6.0%
4월13일	03:00	미국	연방예산	3월		-262.00B
4월13일		중국	수출 YY	3월		-6.8%
4월13일		중국	수입 YY	3월		-10.2%
4월13일		중국	무역수지 USD	3월		116.88B
4월13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YY	2월	1.6%	0.9%
4월1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3일주간	205k	228k
4월13일	21:30	미국	PPI YY	3월	3.1%	4.6%
4월14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3월	-0.2%	-0.1%
4월14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3월	-0.2%	0.2%
4월14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3월	-0.4%	-0.4%
4월14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3월	0.2%	0.0%
4월14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4월	62.7	62.0
4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3월		-1.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10일 (월)

- ⊙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2023 춘계회의 (16일까지)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NYU 이코노믹스리뷰 주최 토론 참석 (11일 오전 5시15분)
- ⊙ 휴장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월11일(화)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경제클럽포럼에서 연설 (12일 오전 2시30분)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와튼 금융정책 및 규제 이니셔티브에서 경제전망 관련 연설 (12일 오전 7시)
- ⊙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몬태나주립대 행사 참석 (12일 오전 8시30분)

4월12일(수)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치몬드 연은 주최 행사 개회사 (오후 10시)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및 통화정책 보고서 (오후 11시)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21-22일 회의록 공개 (13일 오전 3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美 은행 실적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은행권 우려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시장을 움직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SVB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8일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S&P500 은행업종지수는 18%나 하락했다.

레피니티브 I/B/E/S 자료에 따르면 S&P500 금융주들의 1분기 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2%로 추정된다.

JP모간, 씨티그룹, 웰스파고가 오는 14일 실적을 발표하며,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그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 스위스 의회, UBS-CS 합병 특별조사위원회 개최

스위스 의회가 11일부터 사흘간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증의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이번 인수합병을 위해 스위스 정부는 약 2,600억스위스프랑(2,800억달러)의 유동성과 보증을 제공했다.

지난 5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CS 고위 경영진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취소하거나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 우에다 BOJ 총재 공식 취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신임 총재가 이번 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우에다 총재는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의 뒤를 이어 적어도 당분간 초완화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큰 정책 변화는 꺼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10일 열릴 그의 취임 연설을 주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큰 폭 상회하고 임금도 상승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BOJ의 대규모 부양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관심이다.

⊙ 유가와 미국 인플레이션

주요 산유국들 모임인 OPEC+의 깜짝 감산 발표로 지난 한 주간 국제유가가 6% 이상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은행권 위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촉발되면서 유가가 하락한 이후 나온 조치다.

이제는 유가가 계속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세계 경제 둔화로 감산 영향이 상쇄될지가 문제다.

일단 시장은 오는 12일 발표될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CPI 전년 대비 상승률이 5.2%로 전달의 6.0%에서 둔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 세계은행 및 IMF 춘계회의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2023 춘계회의가 10~16일 워싱턴에서 열리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성이 가장 큰 의제가 될 전망이다.

IMF는 11일 세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통령이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한 아제이 방가 전 마스터카드 CEO가 처음 참석하는 회의로, 그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세계은행의 연간 대출 능력을 약 50억달러 확대하자는 전임자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마켓코멘트)-새 총재 맞는 BOJ, 완화정책 유지할 듯

4월07일 (로이터) -

몇 분기 전부터 일본은행(BOJ)의 정책 바이어스가 빠르게 바뀌리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OJ는 2분기, 어쩌면 올 연말까지도 현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임기는 8일 종료되고, 오는 9일, 사실상 10일부터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가 지휘권을 잡는다. 다음 주 초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구로다 총재가 재임한 지난 10년간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국채 시장 기능과 관련해 상당한 비판이 초래됐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상당하다. 최근 은행권 우려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일본의 성장 부진은 BOJ가 완화정책을 장기간 유지해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BOJ가 예상하는대로 올해 후반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How the Yen has mo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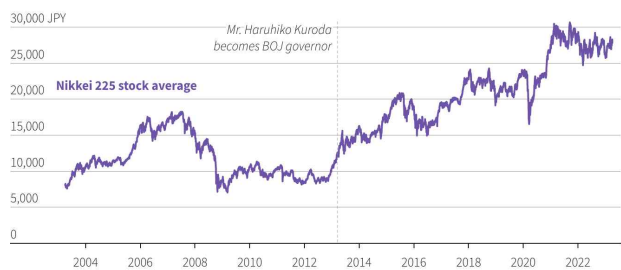
The Japanese yen depreciated significantly over time since the Bank of Japan introduced i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QQE) in April 2013 and touched a 32-year low in Oct. 2022.



Source: Refinitiv Eikon | Reuters, April 6, 2023 | By Sumanta Sen

Kuroda boost to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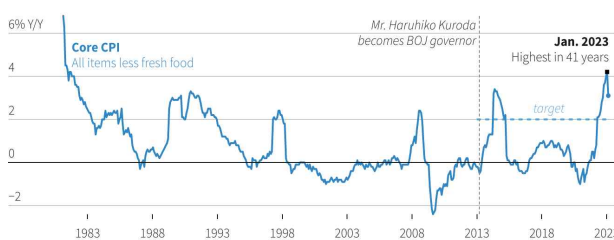
BOJ Kuroda's stimulus policy gives a shot in the arm for Japan's stock market.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pril 6, 2023 | By Sumanta Sen and Kripa Jayaram

Japan's inflation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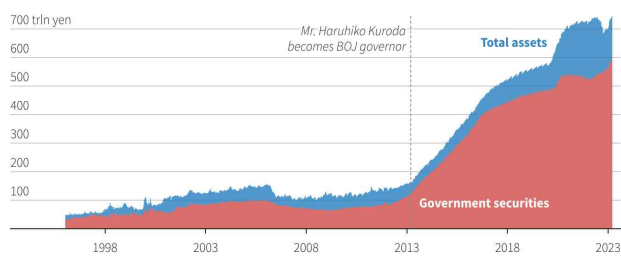
Core CPI remains above BOJ's target of 2%.



Note: A jump in CPI readings in fiscal 2015 and another increase in 2020 were caused by base year effects from the national sales tax hikes in the previous years, while recent surge was caused by global commodity inflation.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pril 6, 2023 | By Kripa Jayaram

BOJ's ballooning balance sheet

Bank of Japan's balance sheet has inflated as a result of a decade of massive asset purchases.



Note: Government securities include Japanese government bonds and treasury discount bill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pril 4, 2023 | By Kripa Jayaram

※ 이다 하루야 로이커 마켓 애널리스트의 개인 견해입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1.12%, 유로화 +0.54%, 엔화 +0.50%, 위안화 역내 +0.09%, 달러지수 -0.46%
- 국내 주가: 코스피 +0.55%, 코스닥 +3.84%
- 미국 주가: 다우존스 +0.63%, 나스닥 -1.10%, S&P500 -0.10%, 러셀2000 -2.66%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2.4 bps, 10년 -4.5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4.8 bps
- 미국 국채: 2년 -24.1 bps, 10년 -20.0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53.1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6.65%, 금 선물 +2.04%, 레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1.67%